

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보 도 자 료

누구든, 어디서든

모두를 위한 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보도 일시	2022. 6. 15.(수)	배포번호	국립경주박물관 2022-14
담당 부서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책임자	과 장 한승철 (054-740-7540)
		담당자	학예연구사 이현태 (054-740-7542)

신라 도리천, 경주 낭산 문화유산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 공동 개최

- 전시 개요 -

- 전 시 명: 낭산, 도리천^{初利天} 가는 길
- 전시기간: 2022. 6. 15.(수) ~ 2022. 9. 12.(월)
※ 언론공개회: 2022. 6. 15.(수) 11:00 / 개막식: 2022. 6. 15.(수) 15:00
- 전시장소: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 전 시 품: 전 황복사 터 삼층석탑 출토 사리 장엄구 등 389점
※ 국가지정문화재: 전 황복사 터 삼층석탑 출토 금제여래좌상 등 국보 2점
- 주 최: 국립경주박물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재)성림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박광열)과 함께 6월 15일(수)부터 9월 12일(월)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신라인들이 각별하게 여긴 경주 ‘낭산’에 대해 소개하고 나아가 낭산에 분포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리며,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번 전시는 ▲ ‘낭산으로의 초대’ (프롤로그) ▲ I부 ‘신들이 노닐던 세계’ ▲ II부 ‘왕들이 잠든 세상’ ▲ III부 ‘소망과 포용의 공간’ ▲ ‘전시를 마치며’ (에필로그) 등 5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먼저 ▲ ‘낭산으로의 초대’ (프롤로그)는 경주 분지에서 낭산의 위치와 낭산에 분포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 I 부 ‘신들이 노닐던 세계’에서는 사천왕사와 전(傳) 황복사 등 낭산의 사찰에서 다양한 신장상(神將像)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한다. 토착 신앙의 성지였던 낭산이 신장상의 조성 등을 통해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공간으로 변하긴 했지만, 신성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국가를 지켜준다는 상징성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진 배경을 담았다.

* 신장상(神將像) : 사찰이나 부처를 수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고 칼이나 창을 들어 무장한 신상

▲ II 부 ‘왕들이 잠든 세상’은 진평왕릉과 선덕여왕릉이 낭산 일원에 들어서면서 낭산 일대가 신라 왕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과정에서 왕의 명복을 비는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소개한다. 1942년 전 황복사 삼층석탑에서 수습된 사리 장엄구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데, 국보로 지정된 금제 불상 2구를 비롯한 사리 장엄구가 세상에 나온 지 80년 만에 처음으로 일괄 전시되어 이번 특별전의 의미를 더한다.

▲ III 부 ‘소망과 포용의 공간’에서는 낭산이 국가와 왕실의 안녕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소망을 기원하던 공간으로 성격이 확장되었음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능지탑 발굴품을 한 자리에 선보인다. 능지탑의 원형을 짐작케 하는 벽전(壁塼)과 상륜부 장식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낭산 서쪽 자락에서 발견되었다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십일면관음보살상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약사불 좌상이 처음으로 함께 전시되는데,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던 신라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 벽전(壁塼) : 벽면이나 기단 면을 장식하는 전돌

▲ ‘전시를 마치며’ (에필로그)에서는 사역(寺域)의 대부분이 발굴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사찰의 명칭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 황복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낭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경주 낭산과 그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주에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재)성림문화재연구원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전시를 개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경주 낭산의 문화유산과 그 역사 속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붙임 1. ‘낭산’ 관련 설화 및 배경 소개
2. 특별전 포스터
3. 특별전 대표 전시품.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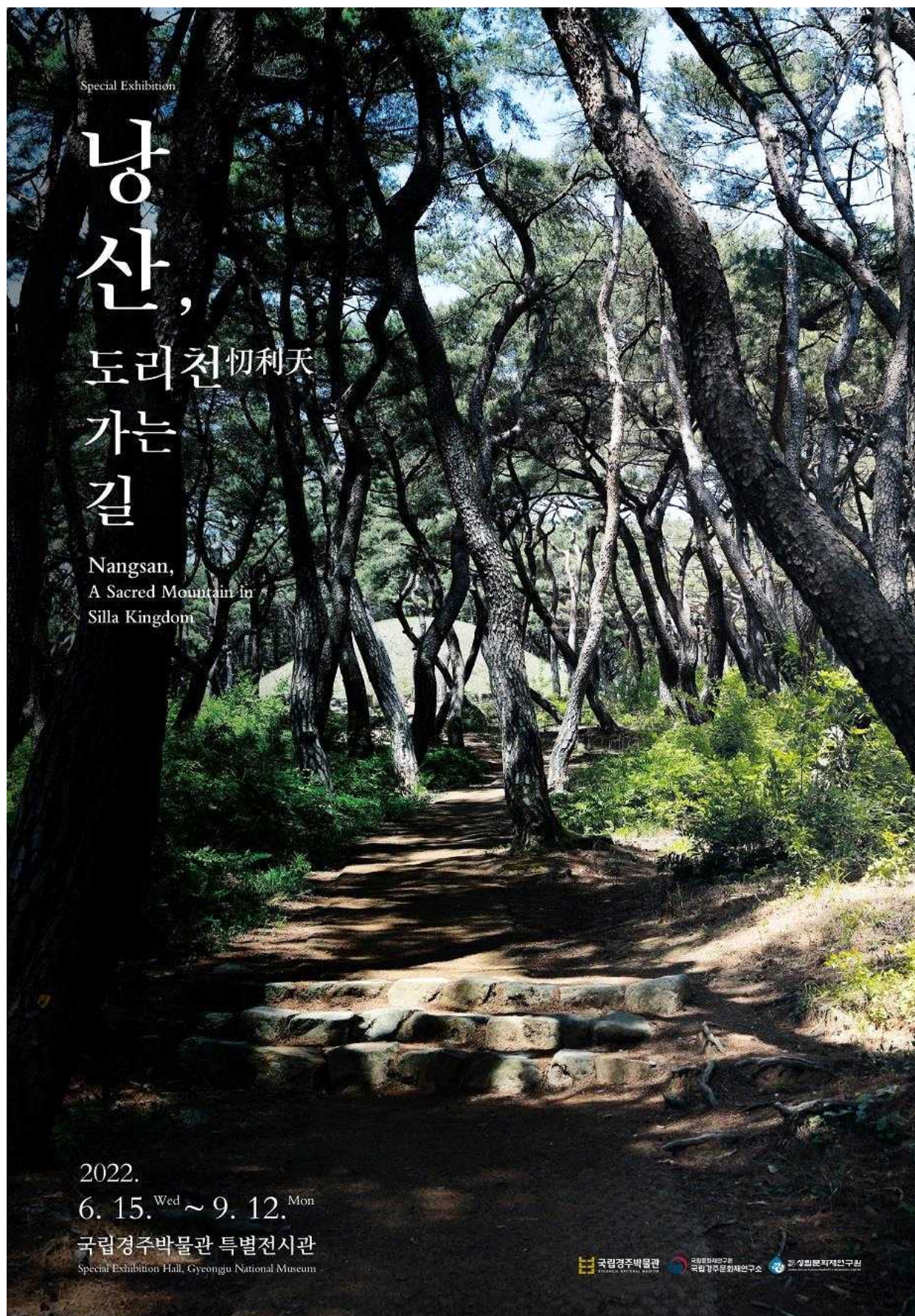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학예연구사 이현태(054-740-75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에는 경주 낭산과 관련해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다. 신라 제 27대 왕인 선덕여왕은 내가 죽거든 도리천(勿利天)에 물어달라고 유언하자 신하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고, 선덕여왕은 낭산의 남쪽이라고 알려주었다. 불경에는 사천왕천(四天王天)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고, 문무왕 19년(679) 낭산 기슭에 사천왕사가 세워지자 신라인들은 그제야 선덕여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 사천왕천: 불교의 우주관에서 중심에 위치한 수미산(須彌山)의 중턱에 있으며, 사천왕이 주재함
- * 도리천: 수미산의 정상에 있으며, 불법(佛法)의 수호신인 제석천(帝釋天)이 주재함

신라인들에게 수미산으로 여겨진 경주 낭산은 토착 신앙의 성지였다. 사천왕사가 세워진 곳은 원래 신들이 노니는 숲인 ‘신유림(神遊林)’이 있었다. 413년 누각 형태의 구름이 낭산에서 일어났고 향기가 가득 퍼져 없어지지 않자, 당시 실성 이사금은 “이는 반드시 신선이 내려와 노니는 것이니, 응당 이곳은 복스러운 땅”이라며 낭산에서 나무 베는 것조차 금할 정도였다. 이러한 신령스러움 때문에 낭산은 중요한 제장(祭場)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라의 중요한 명산대천(名山大川) 가운데 으뜸인 삼산(三山)의 하나로 대사(大祀)가 거행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낭산은 사천왕사와 망덕사, 전 황복사 등 불교 유적이 강조되면서 토착 신앙 및 신라의 국가 제장으로서의 면모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Special Exhibition

낭산, 도리천 仞利天 가는 길

Nangsan,
A Sacred Mountain in
Silla Kingdom

2022.
6. 15. ^{Wed} ~ 9. 12. ^{Mon}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Special Exhibition Hall, Gyeongju National Museum

국립경주박물관
NATIONAL GYEONGJU MUSEUM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볼임 3

특별전 대표 전시품



1. 전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 장엄구(통일신라, 692년 및 7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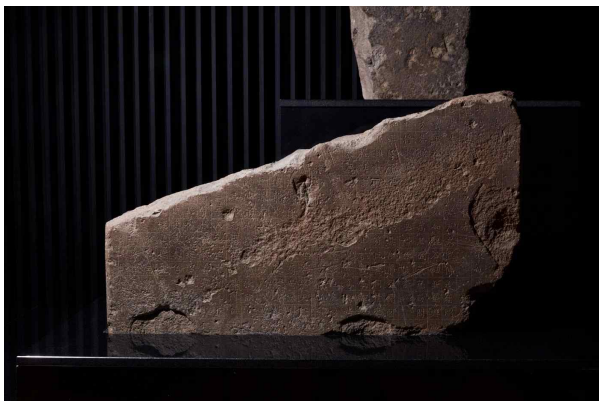
2. 전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 장엄구의 금제 불상(통일신라, 692년 및 706년)



3. 전 황복사 출토 신장상(통일신라)



4. 사천왕사 출토 녹유 신장상 벽전(통일신라, 7세기 후반)



5. 문무왕릉비(통일신라, 681년 또는 682년)



6. 전 황복사 출토 비편(통일신라)



7. 사천왕사 출토 수정·유리 구슬
(통일신라)



8. 사천왕사 출토 토제 탑
(통일신라~고려)



9. 망덕사 출토 연꽃무늬 수막새
(통일신라)



10. 망덕사 출토 청동 정병 등 공양구
(고려)



11. 능지탑 출토 상륜부 장식
(통일신라)



12. 능지탑 출토 벽전과 전
(통일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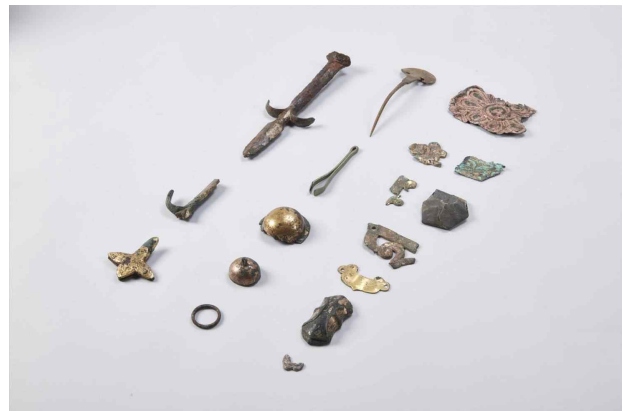
13. 능지탑 출토 소조불 좌상 편[무릎 부분]
(통일신라, 7세기 후반)



14. 능지탑 출토 석조불 좌상
(고려)



15. 사천왕사 및 전 황복사 출토 용얼굴무늬 기와
(통일신라)



16. 사천왕사 출토 각종 금속 장식
(통일신라)



17. 낭산 출토 십일면관음보살상
(통일신라)



18. 낭산 출토 약사불 좌상
(통일신라)